

ADA에 의한 치과계 뉴스

치과진료에 있어서 걱정된 감염예방 수단은?

지금 미국치과의학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혈액을 통한 감염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고하고있는 안전규칙 문제이다.

B형 간염, AIDS, 기타 혈액 및 체액을 거쳐서 무서운 병을, 특히 진료종사자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대단히 엄격한 규칙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모체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즉 OSHA라고 불리우며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일종의 정부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만들어 지려고 하고 있는 안전규칙이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보아 대단히 어려운점이 있다.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 규칙에 따르자면 우선 지나친 비용때문에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Dugoni ADA회장이 치과의학계를 대표하여 OSHA책임자를 찾아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고 각지부에서는 해당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는 등등 법석을 떨고 있다. 즉 OSHA가 제안하고 있는 규칙안에 몇가지 부분을 열거해보면

- 진료 종사자는 고용자로서의 책임상 그 비용을 부담하여 B형간염 예방을 받도록 한다.
- 진료가 끝난 모든 기구는(주사침이나 메스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 모든 치과의료자는 얼굴의 옆면까지 덮히는 안경, 마스크, 방수용 진료의(衣), 모자, 신발의 덮개를 사용후 진료에 임해야 한다.
- ADA통계에 의하면 치과의원에서 버려진 폐기물의 월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폐기물 발생처 폐기물	교정과	치주, 보존과	일 반 치 과	평 균
메스 또는 주 사침	0	0.2kg	0.3kg	0.3kg
종이류	0	0	0.3kg	0.3kg
진료에 관계된 물건	32kg	14kg	36kg	34kg
기공실에서 쓰 는 물건	1.5kg	1.5kg	9kg	7.5kg

<ADA뉴스 1989년 10월 23일 및 11월 6일 호에서>

최근 미국에서의 치과개원의(醫) 통계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원하기 까지의 기간은 4년 이내 개원이 68%, 6년 이내가 82%이다. 70%에 해당하는 치과의가 단독으로 개원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group 진료의 형태로 진료하고 있다.

1989년도의 치과대학 입학자 중 여학생은 33%였다. 또 백인계 이외의 학생은 전체의 30%로서 아시아계가 16%, 라틴아메리카계 8%, 흑인계 7%, 아메리카 인디안계 0.5%였다.

평균환자수는(구강위생에 관한 진료 포함) 1주(週)당 82명, 연간 3,900명이며 치과의사 한 사람당 4명의 치과위생사 또는 보조자가 딸려 있고 그중 한사람은 파-트타임이다.

치과대학 지원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1978년에는 6,300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4,000명이 입학했다. 그중 여학생이 차츰 증가하고 있고 2000년대에 가서는 여자치과의사의 개원의 수는 22,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수는 현재의 3배에 가까운 수이다.

치과의료업의 장래는 핑크빛(색)인가

1978년부터 1987년에 걸쳐 개업하고 있는 직종중에서 치과의원은 전체의 직종중 3번째로 좋은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조사는 236종의 기업에 포함된 150만건에 가까운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수입면에서 볼 때 1987년도의 일반치과의사(GP)의 실수입은 80,190불(年)이며 전문치과의는 11만불이었다. 치과의사 일인당 연간 수입은 미국의 1가구 수입에서 보았을 경우, 상위 8%의 높은 소득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 대졸자의(30세 이하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8,420불에 비해 치과의사는 44,480불로서 이는 일반 직종의 1.6배가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평판은 어떤가?

현재 미국의 치과의사는 14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중 90%가 개원의로서 80%는 일반개원의(GP)이며 나머지 20%는 전문치과의이다.

전문치과의 중 치과교정의와 악안면구강외과의가 5분의 3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젤럽 조사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존경받는 직종으로서 그 순위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로서는 他醫師, 목사, 변호사와 비교하여 정직하다는 것이며 윤리관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높다고 한다. 또 USA Today의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이 치과의사의 진료작업내용은 다른 직종보다 진지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상 3件은 ADA 뉴스 1989년 9월 18일호에서)

美國의 신년도 치의학 연구예산

미국정부는 NIDR(국립치과연구소)를 통하여 금후 치과의학연구추진을 위해 3개 기관에서 5년간에 걸쳐 막대한 연구비를 후원 할 것이라고 한다. 이 3개 기관명과 연구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치과의사회 건강재단(약 48만불)

파철헤바-가 연구소와 NIST(前 NDS)와의 협조아래 새로운 치과재료의 개발에 착수한다.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의 방호용 악안면 보철재, 경화시 수축이 적게 나타나고 내구력이 강한 합성 상아질 등이다. 파철헤바-가 연구소의 Bowen박사는 이전에는 쥬-브와 그에 의한 파노라마 X선 기기나 에어 터빈의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번 시행하는 공동 연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2) 미취간대학 치학부(72만불)

구강외과용 악안면 보철재, 항구적으로 유연성이 보장되는 충의치용 이장재, 내 마모성이 높은 고분자 세라믹 복합재, 심미성이 양호한 크라운 부릿지용 세라믹재, 그리고 임프란트에 서 수복재에이르는 폭 넓은 치과재료의 조직적합성을 체크하는 실험실, 혹은 생체테스트법등 등이다.

이 연구예산에 의해 이미 25개년에 걸쳐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동대학 공학부와의 연계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연구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후로리다 대학 치학부(45만불)

폰테이크제, 표면피복재, 이장재, 근충재등에서 소정의 원자 또는 분자가 조절적으로 解離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이런 등등의 재료의 연구목적은 수복재하에 우식 활동성의 마-가, 불소가 기타 구강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화합물의 시간조절성 해리, 수복재하에 사용함으로써 2차 우식의 방지, 골 흡수부나 노출된 치수부의 치유·수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도 동 대학 공학부와의 공동 연구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ADA뉴스 1989년 11월 6일호에서)